

# 일본의 민속

# 불

글 | 임경택  
전북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

인간이 최초로 불을 의식하게 되는 것은 화산의 분화, 혹은 낙뢰로 인한 산불 등, 자연의 위협적인 에너지를 통해서였다. 그렇게 발견된 불은 이윽고 인간 생활 안에 들어오게 되고, 문명적인 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된다. 하지만 아무리 편리하고 귀중한 에너지라 하더라도 불은 본래 위협적인 에너지라는 측면을 잃지 않는다.

즉 불은 ‘위협과 은혜’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대의 도시생활에서는 거의 잊혀져 가고 있지만, 이전에는 어느 집의 부엌에나 조왕신을 모시고 있었다(이것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 불의 신은 평상시에는 인간의 생활을 지켜주고, 부를 가져다주는 고마운 신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화가 나게 되면 모든 것을 불태우고 집이나 재산, 심지어는 생명마저 앗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불은 발견된 이래 문화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자연과 문화의 경계선에 존재하면서 자연으로부터 문화로의 이행을 매개해 왔다. 불은 흙을 토기로, 동식물을 조리하여 음식으로, 광석을 가공하여 이기(利器)로 사용되는 금속으로 전환시켜 왔던 것이다. 또한 불은 악령을 쫓고, 부정한 것을 정화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와 같이, ‘위협과 은혜’의 양면성은 자연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특히 불의 신처럼 그 낙차가 극심한 신일수록 인간의 생활에 보다 깊이 관계하게 된다. 그만큼 과거로부터 불을 다스리는 신을 매우 소중히 섬겨 왔던 것이다. 얼마 전 종영된 ‘주몽’에서도 불을 다스리는 신녀의 모습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 불의 신 카구츠치

일본의 대표적인 불의 신은 카구츠치(迦具土)인데, 일본열도의 탄생신화에 등장하고 있다. 그는 이자나기(伊邪那岐命)와 이자나미(伊邪那美命)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출생 시에 그의 몸에 붙어 있던 불로 인해 어머니인 이자나미의 음부를 태워 죽게 하였다. 그러자 아내의 죽음을 슬퍼한 이자나기는 카구츠치를 죽였고, 그 사체로부터 흘러나온 피가 바위에 스며들어 암석의 신, 불의 신, 벼락신, 비의 신, 물의 신, 그리고 많은 산신이 생겨났다고 하는, 화전경작문화의 유형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이 카구츠치는 방화(防火)의 신으로서 아타고(愛宕)신사의 제신이고, 총본산이 교토(京都)에 있다. 이 신사의 신은 원래 거울신이었으나, 도읍을 화재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소원하면서 별자 이 신사에 불의 신인 카구츠치가 내려오면서 이 신사의 신을 진화, 혹은 방화의 신으로 신앙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신사는 중세시대에 불을 신성시하던 슈켄도(修験道)의 신자들의 성지로 간주되었고, 그들이 이 불의 신에 대한 신앙을 전국에 퍼뜨리게 되었고, 불의 신은 낮은 산이나 언덕에 내려옴으로써 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신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아타고와 함께 방화의 신으로 전국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키바(秋葉)신앙이 있다. 총본산은 시즈오카현에 있는 아키바신사인데, 이곳의 제신도 카구츠치이다. 특히 이 신사는 에도시대 에도(지금의 도쿄)에서 끊임 없이 일어나는 화재로 인해 서민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 생활 속에서 불에 대한 신앙

이와 같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신앙은 신사를 통해 발현되어 온 한편으로, 불의 정화력을 믿는 풍속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인들은 7월 15일경이 되면 자기 조상들이 다시 찾아온다고 믿고 있다. 불교의 우란분(于蘭盆)에서 유래한 오본



칸토마쯔리



칸토마쓰리

(お盆)이 그것이다. 이 날이 되면 집 앞에 불을 피워 조상이 그 불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무카에비(迎え火: 맞이들이는 불)라 한다. 2~3일 머문 조상이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불을 피우는데 이는 오쿠리비(送り火: 보내드리는 불)라 한다. 정월 대보름의 도소(道祖)신 마쓰리에서는 아이들이 작은 오두막을 지어 건강이나 생식력의 증진을 빌고, 종료 후에는 소각하여 신을 떠나 보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본인들이 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신앙체계는 이른바 '히마쓰리(火祭)'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히마쓰리란 불을 피워서 신령이나 조상, 정령을 불러내, 건강이나 풍작을 기원하거나 악령을 쫓아내거나 그 영을 위해 빌어 주는 제례를 의미한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교토의 '다이몬지야키(大文字焼)', 아오모리의 '네부타 마쓰리' 등을 들 수 있다.

### 톤도(トンド)

음력 정월 대보름의 히마쓰리이다. 각 지역마다 명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보름 날에 행해지는 히마쓰리에 대해 일본인들은 매우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고, 생활환경이나 행사의 위상 등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편차를 보인다. 불을 피우는 의미는 신을 보낸다는 뜻이 가장 크고, 정월에 사용했던 장식물을 없애면서 한 해의 복을 비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네부타마쓰리

이 히마쓰리를 행하기 위해 산에서 묘목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 때 묘목과 함께 신을 모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 묘목을 태우면서 그 불로 떡을 구워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며, 불이 타오르는 모양이나 중심봉이 쓰러지는 모양을 보고 일년의 길흉을 점



치기도 한다. 이는 불이 그 자체의 속성으로서 신성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 네부타 마츠리(ねぶた祭り)

일본의 동북지방과 관동지방 일부에서 칠월 칠석에 행하는 행사이다. 원래 여름에 엄습해 오는 수마(睡魔)를 쫓아내고자 했던 민속행사에, 액을 물리치기 위한 '인형 흘려보내기'와 오본 다음날 정령을 보내는 의식이 습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는 아오모리의 네부타가 그 규모나 화려함으로 인해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과 같은 네부타의 유래는 옛날 이 지역의 장군이 에조(지금의 홋카이도)를 정벌하였을 때 적을 유인하는 책략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메이지 시대 이후, 대나무를 심으로 하여 나무나 칩핀 등으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큰 인형을 만들어, 전통 화지(和紙)를 붙인 것이다. 인형은 중국의 삼국지에 등장하는 무장들이나, 가부키에서 볼 수 있는 용맹스러운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이 인형들에 불이 켜지는 밤이 되면 마츠리는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그 불은 신을 맞이하는 징표가 되고 동시에 마을을 정화하고 지켜주는 상징이 되는 것이다.



네부타마츠리

### 칸토(竿燈)마츠리

8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아키타현의 아키타시에서 행하는 마츠리로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늘을 찌를 듯한 등을 밝히면서 정령들을 떠나 보내는 마츠리이다. 일본의 경우 오본이 되면 대부분의 절에서는 정령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아주 높이 등(提燈)을 내거는데, 이 마츠리도 거기에서 연유하였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네부타 마츠리와 같이 칠월칠석에 수마를 쫓기 위한 의식과 오본의 등불밝히기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마츠리이다. 두 마츠리 모두 불을 밝혀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 다이몬지야키(大文字焼)

다이몬지야키는 교토에서 행해지는 오본의 종교행사로서, 8월 13일에 불을 통해 집으로 맞아 들인 정령들을 16일에 다시 명부로 보내는 의식인데, 다이몬지오쿠리비 혹은 고잔(五山: 교토의 지명)오쿠리비라고 불린다. 8월 16일 밤이 되면 교토 주위의 산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 '妙', '法' 등의 문자가 동시에 크게 떠오르고, 이어서 신사의 토리이(鳥居), 배 모양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 불을 향해 합장하면서 조상들을 다시금 떠나보내고, 소원을 빈

다. 이 불은 각각의 장소에서 불을 피워 만들어 내는 것인데, 나무 조각 하나하나에는 조상공양이나 무병무재, 취업, 학업성취 등의 기원문이 쓰여 있다.

교토 사람들은 이 행사를 보면서, 집으로 돌아온 정령들이 다이몬지의 '大' 자 모양을 한 불을 통해 그 번뇌를 날려 버리고, 묘법으로 '남무묘법연화경'을 외치고, 배에 올라타, 토리이로 상징되는 신사를 지나 다시 명부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드라마를 연상한다. 교토 시내가 하나의 우주로 변화하는 순간을 연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장대한 행사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게 된 것은 불

다이몬지 태우기



교가 서민들 사이에 침투하게 된 중세 이후, 즉 무로마치 시대 이후라고 한다. 산 위에 불로 커다란 문자나 모양을 만들게 된 것은 오본날에 소나무에 불을 붙여 허공으로 던지면서 하늘 너머 저승으로 정령들을 보냈던 행사에서 기원하고 있다. 허공으로 던진 불이 공중에 고정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름밤에 타오르는 불꽃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인식시키고, 조상들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여름에 일본 전국 각지에서 행해지는 '하나비(花火)대회' 즉 불꽃놀이 축제는 단순한 폭죽놀이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신사의 행사로서 이루어지고, 민속예능에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일본인들도 예외 없이 불을 통해 신앙심을 발현시키는 행위를 지속해 왔다. 불을 신성시하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특히 불을 이승과 저승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기제라 여겨 왔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불도 현실에서는 무서운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있는 것이 일본인이다. 목조건축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에도시대의 기록들을 보면 동네에서 일어난 화재를 꼼꼼히 기록하고 있으며, 에도시대의 건축이 방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고, 소방조직이 철저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각 동네마다 청년들을 대원으로 하는 소방대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본인들에게 불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마츠리를 만들어내게 하였고, 위협과 은혜라는 요소를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을 발달시켜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㉞

